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19	09. 26	10. 03
대표 기도	김복자 권사	통성기도	정용현 집사
성경 봉독	김복자 권사	이 현 성도	정용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예배 전 찬양 - 매 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2. 말씀방 - 사사기를 묵상 중입니다.
3. 소리 내어 찬송하거나 기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4.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만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513장 다같이
 기 도 Gebet 황희순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사 16 : 23 - 27(구p390) 황희순 집사
 설 교 Predigt 용두사미, 사두용미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516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복자 권사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욕망

나눔 공동 운동 본부를 이끌고 있는 손봉호 장로님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를 정당화하고 성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능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충성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자기반성에 철저한 사람이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몰랐습니다(삼하12:1~12) 다윗과 같이 영민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기비판이 필요합니다. 자기와의 싸움, 곧 자신을 말씀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고 폭로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사악한 두뇌와 동물적 본능이 만나면 세상 어느 존재도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된다고! 동물에게는 본능이 있지만, 그나마 악한 두뇌는 없기에 인간보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악한 두뇌에다 동물적 본능까지 있으니 동물이 결코 일으키지 못할 비극을 만듭니다. 그런 두뇌와 동물적 본능을 가진 인간이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까지 체멋대로 가미한다면 인간은 가장 추악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하나님과 물 타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갑각류 크리스천 블랙 편 / 옥성호 목사
(일산 충청교회 담임)

* 하나님을 후원자로만 여기지 말고 주권자로 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기업을 원하지 말라
- Joseph Alleine(1634~1688) -